

꾸준한 지식 습득과 노력으로 낙농위기 이겨낼 것



정 주 이
전남 나주 청솔목장

필자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후 가업인 낙농업을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다.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땐 시키는 일만 하다가 부모님 밑에서 직접 목장을 운영해보니 좀 더 막막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에 해오던 방법은 아무래도 기록과 회계 방면에서 미숙하여 목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2세 농업인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던 아버지께서 낙농육우협회에서 목장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추천하셔서 신청하게 되었다.

먼저 조석진 교수님으로부터 낙농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간 잘 알지 못했던 낙농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낙농업의 전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목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목장경영 시간에는 나현채 대표님으로부터 목장 경영에 필요한 회계의 기초를 배우고, 배운 것을 토대로 손익을 따지며 가상의 목장을 만들어 운영해보는 조별활동을 하게 됐다. 이 조별활동을 통해서 막막하기만 했던 회계에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손익을 따져나가며

목장을 운영해야 할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조별로 교육을 하다 보니 전국에서 모인 낙농 선배님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교육 외에도 좋은 점이 많았다.

질병관리 시간에는 류일선 소장님으로부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교육생들의 질문과 소장님의 답변으로 이미 알고 있던 질병에 대해 다시 알아볼 수 있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질병까지 참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평소 사소하게 여기던 질병도 목장의 수익을 낮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미리미리 예방하여 목장의 수익을 높이도록 노력해야겠다.

많은 정보를 알아가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은 많이 하게 되었지만 모든 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보단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하다보면 언젠간 성공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목장에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경험이 적고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처럼 유익한 교육이 있다면 부지런히 참여하여 목장관리에 힘을 쓸 것이다.

현재 우리 낙농업은 FTA와 원유수급 불안정, 높은 쿼터가격으로 신규 진입 농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농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낙농업이 여기까지 잘 해쳐온 것을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목장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